

주간 통일정세

2017-2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5.20	北김정은, '화성-12' 개발자들과 기념사진...“주체무기 더 생산”(연합뉴스)
		北외무성 “핵 억제력 다지는 노력 더욱 강화될 것”(연합뉴스)
		유엔 北차석대사, 랜섬웨어 사이버공격 北배후설에 “웃긴다”(연합뉴스)
		北, '화성-12' 연일 띄우며 체제결속...김정은에 충성 독려(연합뉴스)
		北매체, '랜섬웨어 배후설'에 “모략 광대극” 반발(연합뉴스)
		北선전매체, '韓美 대북 테러모의' 주장 영상 공개(연합뉴스)
		유엔 北차석대사 “美대화 제스처하지만 말 아닌 행동이 중요”(연합뉴스)
		北 외무성 국장, 오스트리아 방문 및 담화(연합뉴스)
	5.21	김영남, '연입' 이란 로하니 대통령에 축전(연합뉴스) “北 정찰총국, 사이버공격 주입무 '180부대' 운영”(연합뉴스)
	5.22	박봉주 총리, 비료·비날론기업소 시찰(연합뉴스) 北 “화성-12 목표는 하와이·알래스카” 공개...의도는?(연합뉴스)
5.23	北 “사상양보는 사회주의 붕괴”...美에 협조한 中 우회비난(연합뉴스)	
5.24	北 “만경봉호 운항은 정상적인 사업...북러협조 계속 발전”(연합뉴스) 北, 연일 '사회주의 수호' 다짐...美·中 압박 의식?(연합뉴스)	
경제	5.22	北 외화벌이 거점 말레이 사라와서 30여년만에 근로자 전원 철수(연합뉴스)
	5.24	EU, 7년 연속 北 고려항공 운항제한...안전기준 미달(연합뉴스)
		中 '이상한' 대북제재...북한산 석탄 막았더니 철광석수입은 급증(연합뉴스)
	5.25	“中단둥-北평양 전세기 운항중단 이유는 모객난”(연합뉴스) 러-北 연결 '만경봉호' 상업 운항 시작...“승객은 고작 7명”(연합뉴스)
5.26	北, 4월 중국산 곡물 수입 증가...전년 동기 5배(연합뉴스)	
사회 문화	5.20	“北 자살률 10만 명당 15.8명”...한국보다 낮아(연합뉴스)
	5.21	北황해남도, 산불감시 및 군중동원 체계 완성(연합뉴스)
		김일성종합대학, 진통에 효과적인 피부 크림 개발(연합뉴스)
	5.22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연합뉴스)
		北 평양시 대동문유치원, '어린이 건강의 날' 행사 개최(연합뉴스)
		北 김책공업종합대학, '전 방향 이동 로봇' 설계·제작(연합뉴스)
조선신보 “北 12년제 의무교육, IT·외국어 강화”(연합뉴스)		

외교 국방	5.23	제54차 청소년체육학교 경기대회 개막(연합뉴스)
	5.25	WHO “北 대기오염 사망률 세계 최고…南의 10배”(연합뉴스)
	5.20	미국방 “대북 군사해법, 믿기힘든 규모의 비극될 것”(연합뉴스)
		北통신 “일본도 우리의 타격권” 위협(연합뉴스)
		北보건대표단, 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 위해 출발(연합뉴스)
	5.21	미국방관리들 “북한 KN-17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성공”(연합뉴스)
		미국무 “北미사일 도발 실망·충격…경제·외교압박 지속”(연합뉴스)
		北매체 “美 타격할 ‘주체탄’ 더 많이 날아오를 것”(연합뉴스)
		러 “北 미사일 발사 포착…러시아에 위협은 안 돼”(연합뉴스)
	5.22	北, 지난달 북창서 미사일 발사 실패 22일만에 성공(연합뉴스)
		中외교부, 北미사일 도발에 “유엔 결의 위반 행동 반대”(연합뉴스)
		日관방 “北외화수입 감소시켜야…독자제재 철저히 시행”(연합뉴스)
		유엔 “北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하라” 촉구(연합뉴스)
		카자흐, 北미사일 발사 비난…“무책임한 도발 행동”(연합뉴스)
	5.23	北 “북극성 2형 시험발사 또 성공…실전매치 승인”(연합뉴스)
		北 공개 ‘북극성-2’ 발사 영상서 2단 추진체 확인(연합뉴스)
		日,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세컨더리 보이콧·캐치올 규제 도입(연합뉴스)
		러시아,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 유엔에 첫 통보(연합뉴스)
	5.24	北, 제70차 세계보건총회 부의장국으로 선출(연합뉴스)
北외무성 “유엔 안보리 성명 고리타분…전면 배격”(연합뉴스)		
미국방정보국 “北 놔두면 美본토 위협할 핵미사일 내놓을 것”(연합뉴스)		
블레어 前 美국가정보국장 “북핵시설 제거 위한 정밀타격 위협”(연합뉴스)		
北, 美 CIA ‘코리아임무센터’ 신설에 “北에 대한 선전포고”(연합뉴스)		
5.25	北 공개 ‘북극성-2’ 미사일 약도 분석하니…중요 데이터 나와(연합뉴스)	
	“北 북극성-2형 발사 장소는 명승지 연풍호 주변”(연합뉴스)	
	北, 美 킬러슨의 ‘체제 보장’ 발언에 “유치한 기만극”(연합뉴스)	
		北신문, 美대북정책 비난 “횡설수설…초강경 대담 준비”(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5.20	화성-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리만건,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장창하	-
5.22	북극성-2형 시험발사 참관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유진, 조용원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5. 20.

■ 北김정은, ‘화성-12’ 개발자들과 기념사진…“주체무기 더 생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개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개발자들을 조선 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부르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고 이날 보도함.
- 김정은은 미사일 연구 부문의 일꾼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속 신들메(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발에다 동여매는 끈)를 바짝 조이고 강위력한 주체무기와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5. 21.

■ 김영남, ‘연임’ 이란 로하니 대통령에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2017. 5. 20.

■ 北 외무성 국장, 오스트리아 방문 및 담화(연합뉴스)

-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2국 국장이 지난 18일 오스트리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2017. 5. 22.

■ **박봉주 총리, 비료·비닐론기업소 시찰(연합뉴스)**

- 박봉주 내각 총리가 함경남도 함흥시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닐론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박봉주 총리는 현장에서 협의회를 열어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여러 건설 사업을 빨리 끝내는 문제 등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박 총리는 함흥모방직공장과 함흥편직공장도 방문해 증산 대책을 강구했으며 앞서 평양화장품공장도 시찰함.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5. 21.

■ **“北 정찰총국, 사이버공격 주입무 ‘180부대’ 운영”(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사이버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180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탈북자와 정부 관리, 인터넷보안 전문가들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로이터통신에 “돈을 벌 목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찰총국의 한 파트인 ‘180부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그는 북한의 해킹 행태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커들이 해외로 나간다”면서 “무역회사나 북한의 해외 지사, 중국이나 동남아 합작회사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5. 20.

■ **北 외무성 “핵 억제력 다지는 노력 더욱 강화될 것”(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화성-12’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비난하

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은 19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국제 여론을 호도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일수록 핵 억제력을 억척으로 다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광신자들은 북조선(북한)을 지지하는 그 어떤 나라나 단체, 개인도 철저히 제재할 것이다, 국제기구라도 문제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엔 위에 군림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유엔 北차석대사, 랜섬웨어 사이버공격 北배후설에 “웃긴다”(연합뉴스)

- 북한이 전 세계 150여 개 국을 강타한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의 북한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함.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과 이번 사이버 공격을 연관 짓는 것은 “웃기는 주장”이라고 발언함.
- 김 차석대사는 “무슨 이상한 일만 벌어지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북한 정부와 연결지으며 떠들썩한 반(反)북한 비난전을 시작하는데 이는 상투적인 방법”이라고 발언함.

■ 北, ‘화성-12’ 연일 띄우며 체제결속…김정은에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띄우며 대내적 체제 결속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 신문에 ‘화성-12’ 미사일의 성과와 의의를 찬양하는 ‘조국과 인민의 축하를 받으시라’는 제목의 정론을 시험발사 사진과 함께 보도함.
- 정론은 “오늘의 승리는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또 다시 만방에 떨친 쾌승, 최후 승리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막을 자 세상에 없다는 것을 현실로 증명한 민족사적 장거”라고 주장함.

■ 北매체, ‘랜섬웨어 배후설’에 “모략 광대극” 반발(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지구촌을 강타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반(反)공화국 모략 소동’이라며 반발함.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20일 ‘북 배후설? 또 하나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제목의 기명 기사에서 “괴뢰 보수 패당이 그러한 (랜섬웨어 공격 관련) 모략 광대극에 매달릴수록 민족의 버림을 받고 최악의 궁지에 빠진 저들의 추악하고 가련한 몰골만 더욱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함.

- 이 매체는 최근 국내 언론들이 랜섬웨어 해킹공격의 배후가 북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괴뢰 보수언론들이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함.

■ 北선전매체, ‘韓美 대북 테러모의’ 주장 영상 공개(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 정보기관의 ‘최고수뇌부 테러 기도’에 대한 자신들의 최근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대남 선전매체 영상을 통해 ‘증거자료’를 공개함.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20일 북한이 주장하는 ‘테러범’의 진술 영상과 증거자료 등을 담은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범죄의 진상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함.
- 영상에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김성일’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등장, 한국내 북한인권단체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적들의 반(反)공화국 모략 선전에 속아 넘어가 극히 천하무도한 테러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 유엔 北차석대사 “美대화 제스처하지만 말 아닌 행동이 중요”(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의 방문에 맞춰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국을 향한 변함 없는 입장을 다시 강조함.
-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이 대화 제스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발언함.
- 김 차석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 한 북한은 핵 타격 능력을 급속하게 증강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함.

2017. 5. 22.

■ 北 “화성-12 목표는 하와이·알래스카” 공개...의도는?(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4일 시험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의 타격 목표가 미국의 하와이와 알래스카임을 공식 확인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전날 이뤄진 ‘북극성 2형’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 소식을 전하며 최근 ‘화성-12’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부각함.
- 통신은 “우리의 군수노동계급은 얼마 전 미 태평양사령부가 동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2)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줄기찬 연속 공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함.

2017. 5. 23.

■ 北 “상양보는 사회주의 붕괴”…美에 협조한 中 우회비난(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23일 “사상의 양보는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사상론을 내세워 최근 미국과 협력해 대북제재·압박에 적극성을 보이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상을 양보하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사회주의 나라들이 사상을 홀시하면서 일면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주의 승리를 이룩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자멸의 길”이라고 주장함.

2017. 5. 24.

■ 北 “만경봉호 운항은 정상적인 사업…북리협조 계속 발전”(연합뉴스)

- 북한이 북·러 간에 운항 중인 화물 여객선 ‘만경봉호’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반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주권국가들 사이의 정상적인 경제협조사업인 만경봉호 운항문제까지 걸고 들면서 조로(북러) 경제협조를 차단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여 질식시켜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우리뿐 아니라 로씨야(러시아) 측의 합법적인 이익도 엄중히 침해하는 횡포 무도한 전횡”이라며 “로씨야 측의 응당한 반발과 배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연일 ‘사회주의 수호’ 다짐…美·中 압박 의식?(연합뉴스)

- 최근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 매체가 사회주의를 김씨 일가와 동일시하며 연일 ‘사회주의 수호’를 강조함.
-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사랑하노라 우리의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사

회주의는 수령님(김일성) 손길 아래 인민이 안긴 첫 요람, 첫 집이었다”라며 “사회주의를 세워주신 수령님 품에서 인민은 비로소 행복이란 말을 알았다”고 주장함.

- 신문은 김정일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우리 집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흑한 속의 야전 열차에 계셨다”며 사회주의를 위한 '헌신'을 부각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5. 22.

- **北 외화벌이 거점 말레이 사라왁서 30여년만에 근로자 전원 철수(연합뉴스)**
 -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거점이었던 말레이시아 사라왁주(州)에서 북한인 근로자들이 30여 년 만에 전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됨.
 - 22일 현지 일간지 보르네오포스트에 따르면 마시르 쿠자트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은 전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근로자 중 누구도 취업허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힘.
 - 보르네오섬 서북해안 일대에 걸쳐 있는 사라왁주는 1980년대부터 북한 근로자들을 탄광과 건설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옴.

2017. 5. 24.

- **EU, 7년 연속 北 고려항공 운항제한...‘안전기준 미달’(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7년 연속 북한 고려항공을 운항제한 항공사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개정해 고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비행기의 역내 운항을 계속 금지했다고 VOA는 전함.
- 방송은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대부분이 국제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운항을 제한했다고 설명함.

■ **中 ‘이상한’ 대북제재…북한산 석탄 막았더니 철광석수입은 급증(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강화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으나, 이 기간에 북한산 철광석의 중국 반입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그 대상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북한이 철광석의 대중 수출에 매진한 결과로 보이는데, 석탄과는 달리 철광석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북한이 석탄 대체제로 철광석 수출을 늘렸기 때문임.
- 24일 중국 해관(세관 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철광석은 28만5천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4% 급증함.

2017. 5. 25.

■ **“中단둥-北평양 전세기 운항중단 이유는 모객난”(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와중에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 후 한달여 만에 운항을 중단한 이유는 모객난 때문이라고 25일 북중접경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전함.
- 북한의 고려항공은 이 노선에 62석인 안토노프 AN-148 기종을 투입해 매주 화·금요일 두 차례 운항함.
- 이 전세기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애초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운항을 허가받았으나, 4개월여 늦게 운항을 개시하고도 허가만료 시점보다 보름 정도 당겨 운항을 중단하였으나 운항 기간에 탑승객은 주로 중국 여행사 대표들이었고 일반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 **라·北 연결 ‘만경봉호’ 상업 운항 시작…“승객은 고작 7명”(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해상 화물·여객선(화객선) ‘만경봉호’가 25일(현지시간) 두 번째운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실어나르며 본격적 상업 운항을 시작함.
- 하지만 200명을 태울 수 있는 화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0명이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짐.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북한 나진항을 출발한 만경봉호는 25일 오전 8시40분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도착함.

2017. 5. 26.

■ **北, 4월 중국산 곡물 수입 증가…전년 동기 5배(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수입한 중국산 곡물의 양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4월 중국으로부터 4천100t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해 4월 곡물 수입양(754t)보다 5.4배나 증가한 규모임.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5. 20.

■ **“北 자살률 10만 명당 15.8명”…한국보다 낮아(연합뉴스)**

- 북한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한국보다 낮다는 세계보건기구(WHO) 통계가 나왔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계보건통계' 자료를 인용, 북한의 자살률(2015년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힘.
- 같은 통계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4명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스리랑카(10만 명당 35.3명), 리투아니아(32.7명), 가이아나(29명)의 뒤를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2017. 5. 21.

■ **北 황해남도, 산불감시 및 군중동원 체계 완성(연합뉴스)**

- 황해남도의 시·군이 산불감시, 군중동원 체계를 완성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함.

■ **김일성종합대학, 진통에 효과적인 피부 크림 개발(연합뉴스)**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과학기술교류소의 연구집단이 북한의 천연 식물 성분들을 이용해 진통 효과가 큰 피부 크림을 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함.

2017. 5. 22.

■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연합뉴스)**

- 북한의 최대 무역 박람회로 꼽히는 평양 국제상품전람회가 22일 개막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었다”며 이날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개막식이 열렸다고 보도함.
- 개막식에는 리룡남 내각 부총리, 김영재 대외경제상 등 북한의 대외교역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또 세계 각국 및 지역 대표단과 북한 주재 외교관들,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함.

■ **北 평양시 대동문유치원, '어린이 건강의 날' 행사 개최(연합뉴스)**

-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에서 22일 '어린이 건강의 날'을 맞아 행사가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행사에는 조선어린이후원협회 회원들과 보건 및 출판 부문 관계자, 북한 내 국제적십자사·적십월사연맹(IFRC) 대표단 단장, 북한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가함.

■ **北 김책공업종합대학, '전 방향 이동 로봇' 설계·제작(연합뉴스)**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전 방향 이동 로봇'을 최근 설계·제작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22일 보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로봇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여러 기업소에 도입됨.

■ **조선신보 "北 12년제 의무교육, IT·외국어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12년제 의무교육은 IT(정보기술)·외국어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홈페이지 '메아리' 코너에 게재한 글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의 특징은 수학, 물리, 화학교육에 기본을 두면서 첨단 IT 기술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통하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함.
- 이 매체는 북한이 교육을 '최고 중대사'로 보고 있다며 "조선(북한)의 높은 로켓 공학 기술, 주체철, 주체비료 개발, 전국적 CNC(컴퓨터수치제어)화 등을 추진하는 수많은 인제는 여기에서 자라난 것"이라고도 강조함.

2017. 5. 23.

■ **제54차 청소년체육학교 경기대회 개막(연합뉴스)**

- 제54차 청소년체육학교 경기대회가 평성 청년경기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전했다.

2017. 5. 25.

■ **제WHO "北 대기오염 사망률 세계 최고...南의 10배"(연합뉴스)**

-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한국의 10배 이상에

-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2017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8명으로 전 세계 17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VOA는 전함.
 - 이런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의 2.6배이며 한국보다는 10배 이상 높음.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5. 20.

■ 미국방 “대북 군사해법,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될 것”(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 해법으로 풀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군사적 해법으로 간다면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
-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이 북핵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함.
- 이어 “따라서 우리는 유엔, 중국, 일본, 한국과 이 상황의 출구를 찾는 데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7. 5. 21.

■ 미국무 “북미사일 도발 실망·충격…경제·외교 압박 지속”(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함.
- 틸러슨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시험은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라고 발언함.
-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주장함.

■ 북매체 “美 타격할 ‘주체탄’ 더 많이 날아오를 것”(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21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시험발사 성공을 재차 과시하며 미국을 향한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감.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개인 논평에서 “미국이 끝끝내 우리와의 대결을 고집한다면 미국의 죄 많은 역사가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기꺼이 보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 땅에서 미국을 타격할 ‘주체탄’들이 더 많이, 더 기운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 매체는 지난 14일 쏘아 올린 ‘화성-12’ 미사일과 관련해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조선은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으며 미국에는 주체 조선의 강용한 전진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함.

2017. 5. 24.

■ **블레어 前 美국가정보국장 “북핵시설 제거 위한 정밀타격 위협”(연합뉴스)**

-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을 벌이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함.
- 블레어 전 국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미중관계국가위원회(NCUSCR)가 뉴욕에서 개최한 대중 관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이 수천 개 터널을 갖고 있으며 핵 시스템을 어디에나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핵시설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 블레어 전 국장은 “과거 북한의 핵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에 핵물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터널을 조사하고 싶다고 말한 뒤 터널을 확인했지만, 비어 있었다고 전함.

■ **北, 美 CIA ‘코리아임무센터’ 신설에 “北에 대한 선전포고”(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최근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 조직인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한 미국을 거칠게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주체의 핵 강국의 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비열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얼마 전 미 중앙정보국은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선임무센터(코리아임무센터)라는 것을 신설하였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우리의 그 무슨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며 큰 변이나 난 것처럼 첩보기구를 총발동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데는 다른 음흉한 목적도 깔려있다”고 언급함.

2017. 5. 25.

■ **北, 美 킬러슨의 '체제 보장' 발언에 "유치한 기만극"(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렉스 킬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언급한 데 대해 "유치한 기만극"이라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최근 미국은 '정권 전복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며 체제도 보장할 것'이라느니, '믿어달라'느니 뭐니 하며 걸발린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함.

■ **北신문, 美대북정책 비난 "횡설수설...초강경 대담 준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체제 수호를 강조함.
- 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진상을 밝힌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에 대한 유례없는 제재 압박과 사상 최대의 군사적 위협 소동에 매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슨 대화의 장을 펼 것처럼 내외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함.
- "새형(신형)의 전략탄도로켓이 연일 만리대공으로 솟구치며 주체 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 미국이 최대의 압박에 대하여 떠들든, 최대의 관여를 들고나오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위선자들이 버릇대로 섬기는 횡설수설로 여겨질 뿐"이라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2017. 5. 22.

■ **中외교부, 北미사일 도발에 "유엔 결의 위반 행동 반대"(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며 비난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질문하자 "중국 측의 유관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다”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함.

- 화춘잉 대변인은 “안보리 유관 결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발언함.

다. 북·일 관계

2017. 5. 20.

■ 北통신 “일본도 우리의 타격권” 위협(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일본이 미국과 잇달아 대북제재를 논의한 사실을 비난하며 “일본도 우리의 타격권”이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16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북압박을 논의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켓(로켓) 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북한)의 막강한 위력과 전략적 지위에 걸맞은 자들의 주제넘고 폰수 없는 샷대질”이라고 비난함.
- 이어 “우리가 새로 개발한 전략탄도로켓 발사 이후 누구보다도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일본 반동들”이라며 “일본은 미국 상전에 추종하여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광분함으로써 스스로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더 깊숙이 기여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함.

2017. 5. 22.

■ 日관방 “北외화수입 감소시켜야...독자제재 철저히 시행”(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외화 수입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핵·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 이전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22일 발언함.
-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도발적 언동의 반복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언함.
- 스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독자 조치도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7. 5. 23.

■ **日,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세컨더리 보이콧·캐치올 규제 도입(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 독자적 제재 방안을 논의키로 방침을 세움.

라. 북·러 관계

2017. 5. 21.

■ **러 “北 미사일 발사 포착...러시아에 위협은 안 돼”(연합뉴스)**

-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면서 이번 발사가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밝힘.
- 러시아 군사안보 소식통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에 “러시아 미사일공격경고시스템이 제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해 추적했다”면서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진 않았다”고 발언함.
-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는 미국 내 정치 불안정으로 한반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시함.

2017. 5. 23.

■ **러시아,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 유엔에 첫 통보**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품' 목록을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러시아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스포츠(sports)와 오락(recreation) 관련 기구와 제품을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지정, 북한으로의 모든 직간접적 수출과 운송을 금지한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RFA는 전함.
- 목록에는 모든 종류의 ‘요트’, ‘물에서 타는 기구들’, ‘노 젓는 배’, ‘카누’와 ‘설상차’, ‘크리스털 유리 제품’, ‘당구와 관련한 품목’이 포함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5. 20.

■ 北보건의료대표단, 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 위해 출발(연합뉴스)

- 강하국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보건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제70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2017. 5. 22.

■ 유엔 “北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하라” 촉구(연합뉴스)

- 유엔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이런 행동은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카자흐, 北미사일 발사 비난…“무책임한 도발 행동”(연합뉴스)

-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이 북한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함.
- 카자흐스탄 외무부 대변인 아누아르 좌이나코프는 22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에 “카자흐스탄은 세계 및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는 (북한의) 무책임하고 도발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함.
- 좌이나코프는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함.

2017. 5. 23.

■ 北, 제70차 세계보건총회 부의장국으로 선출(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이 쿡 아일랜드(쿡 제도),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수리남과 함께 22~31일 열리는 제70차 세계보건총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고 VOA는 전함.

-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북한 강하국 보건상은 부의장을 맡게 됨.

■ 北외무성 “유엔 안보리 성명 고리타분…전면 배격”(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북극성-2’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이 “고리타분하다”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21일 진행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 시험발사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의 일환이며 실전배치를 앞두고 응당 거처야 할 공정”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들며 그 무슨 제재니, 규탄이니 하는 고리타분한 유엔 안보리 공보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에 편승한 유엔 안보리 공보문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5. 20.

■ 美국방관리들 “북한 KN-17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성공”(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4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미 NBC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NBC뉴스는 미 국방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 북한의 KN-17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재진입이 통제된 상태로 이뤄져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전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가까운 동해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됨.

2017. 5. 21.

■ 北, 지난달 북창서 미사일 발사 실패 22일만에 성공(연합뉴스)

- 북한이 21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500여km를 비행해 일단 성공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됨.
- 북한은 지난달 29일 오전에도 북창 일대서 탄도미사일 1발을 쏘으나 발사대를 벗어나 공중에서 폭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에 쏘으며

당시와 같은 기종인 것으로 추정돼 실패 22일 만에 성공한 셈이 됨.

- 비행거리로 봤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며, 합참은 지난 2월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KN-15)과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이 유사하다고 밝힘.

2017. 5. 22.

■ 北 “북극성 2형 시험발사 또 성공…실전배치 승인”(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힘.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부대 실전 배비(배치)를 앞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또 한 번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성을 진감하고(지구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북극성 2형의 계열생산 준비를 끝냈으며, 이번 실험이 북극성 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부대들에 실전 배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함.

■ 北 공개 ‘북극성-2’ 발사 영상서 2단 추진체 확인(연합뉴스)

- 북한이 실전배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힌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이 2단 추진체로 구성된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북한 TV 영상을 통해 확인됨.
-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지난 21일 이뤄진 ‘북극성-2’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4분46초 길이의 영상과 여러 컷의 스틸사진으로 공개함.
- 중앙TV는 미사일이 흰 연기를 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친 뒤 각도를 꺾어가며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어 ‘1계단 분리’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표시되면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나타남.

2017. 5. 24.

■ 北 공개 ‘북극성-2’ 미사일 약도 분석하니…중요 데이터 나와(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2일 공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의 ‘시험사격 약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단분리 고도와 시간,

최정점 고도 등 미사일의 중요 데이터가 확인됨.

-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신종우 선임분석관은 24일 “북한이 공개한 약도에 의해 북극성-2형의 단분리 고도, 시간 등이 최초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험사격 약도에 표기된 1단, 2단 분리 시간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나온 분리를 알리는 자막에 나오는 시간과 유사하다”고 설명함.
- 북한이 공개한 북극성-2형 발사 영상에서 콜드런칭(냉발사체계) 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발사체계 방식의 고체연료 지대지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로 고체연료-냉발사체계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 “北 북극성-2형 발사 장소는 명승지 연풍호 주변”(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4일 민간 국토지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극성-2형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는 평안남도 안주시와 개천시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인 연풍호의 일부 호안인 것으로 나타남.
- 익명한 요구한 민간 전문가는 “사진에 나타난 발사장 주변의 산세와 가로수, 호안, 접근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때 연풍호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 전체 지역을 살펴볼 때 발사장 일대 사진과 비슷한 지형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힘.
-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59분께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정동에서 약간 북쪽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행정구역을 공개하지 않음.

■ 미국방정보국 “北 뇌두면 美본토 위협할 핵미사일 내놓을 것”(연합뉴스)

- 빈센트 스투어트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의 현재 궤적을 방치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내놓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스투어트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힘.
- 이어 “북한의 이러한 핵미사일 능력이 언제쯤 운용될지 거의 예측할 수 없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핵미사일 능력을 필연적으로 얻는 경로에 있다”고 언급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5.20	홍석현, 美상하원 군사위원장에 대북정책 설명...특사일정 마무리(연합뉴스)	美특사단 "매케인 등 美 상하원 군사위원장 이달중 방한"(연합뉴스)
			매케인 "사드 돈 우리가 내는 것"...사드 비용 美부담원칙 확인 (연합뉴스)
	5.21		
	5.22	한미·한일 6자수석 어제 긴급통화..."北도발 강력규탄"(연합뉴스)	
	5.25	임성남 외교차관 방미...한미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연합뉴스)	브룩스 사령관 "사드 신속배치, 北위협 때문...한국방어 목적"(연합뉴스)
			트럼프 '4대 대북기조' 확정...한미공조 향배 주목(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5.22		사드 보복 조치 풀리나...중국 언론도 '해빙 분위기' 조성(연합뉴스)
			中, '일대일로' 이어 한국 통과 '일대일로일도' 추진(연합뉴스)
	5.23		中외교부 "남북교류 추진하는 한국 새 정부 대북정책 적극 지지"(연합뉴스)

	5.24		中, 한국상품 통관제재 슬며시 풀었다...사드 이전수준 회복(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5.22		마이니치신문 "日정부, 한중일 정상회의 7월 개최 추진...조율중"(연합뉴스)
			日언론, 韓외교장관 지명에 촉각...위안부 재협상 주도할 듯"(연합뉴스)
	5.23		일본인 57% "文대통령 취임후 한일관계 변화 없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5.24	송영길 대러 특사 "남북러 3각협력 사업 복핵 해결 지렛대"(연합뉴스)	
	5.25		푸틴 "한반도 위기 해결 중재 위해 북한에 특사 파견 용의"(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5.21	美틸러슨-중앙제츠 또 전화통화...한반도 상황 논의(연합뉴스)	
	5.24	美트럼프-리아베, G7 열리는 이탈리아서 따로 만나다(연합뉴스)	
	5.25	中시진핑 "강력한 원양해군 건설" 강조...미국 견제 염두했나(연합뉴스)	
		中, 美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작전에 "즉시 중단하라" 반발(연합뉴스)	
	中, 美와 무역불균형해소 '100일계획' 시동... "에너지등 수입확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21		로스 美상무 日에 "미일 FTA 체결이 최종 목적" 압박(연합뉴스)
	5.24	美틸러슨-이기시다 통화 "대화위한 대화 무의미...北에 압력필요"(연합뉴스)	
		아베, 美태평양사령관 면담... "대북 압력 강화해야"(연합뉴스)	
	5.25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내달 3일 싱가포르서 개최 조율중"(연합뉴스)	
		주일미군, 日배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언론에 공개(연합뉴스)	
			"美, 日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 광 이전계획 재검토"(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5.20	트럼프, 러시아측에 "미치광이 코미 해임...엄청난 압력 넣었다"(연합뉴스)	
	5.21	"트럼프 러 외무장관 접견 발언, 사법방해 증거될 수도"(연합뉴스)	
	5.25		"러시아, 플린·매너포트 활용해 트럼프에 영향력 행사 계획"(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5.22	中, 지하수 탐사 日남성 6명 구속...간첩혐의 적용 가능성(연합뉴스)	
	5.23		중국 해경선, 日과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침입(연합뉴스)
	5.25	시진핑 7월 러시아 방문...푸틴과 북핵 해법 논의한다(연합뉴스)	
	5.26	中왕이 만난 푸틴, 국제문제 협력약속...북핵 대화해법 공유한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5.23	중·러 "한반도 전쟁 불허...사드 반대 확고" 한목소리(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5.24	日, 러와 영유권분쟁 쿠릴섬 공동경제활동 조사단 보낸다(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5. 20.

■ **美특사단 “매케인 등 美 상하원 군사위원장 이달중 방한”(연합뉴스)**

-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과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이르면 이번 달 중 한국을 방문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단 관계자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 이와 함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도 이달 말께 방한할 것이라고 전함. 이들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의원들로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각료들과 여야 의원들을 두루 만나 북핵 해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한국 내 분위기를 직접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방한 가능성도 제기됨. 앞서 홍선현 특사도 전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상하 양원의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전원이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홍석현, 美상하원 군사위원장에 대북정책 설명…특사일정 마무리(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미국 방문 셋째 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와 한반도 안보 관련 싱크탱크를 찾아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설명함.
- 홍 특사는 먼저 상원 의원회관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을 면담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 홍 특사는 오후 하원 의원회관에서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을 설명함. 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조찬 모임과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하는 오찬 간담회에도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함.

2017. 5. 21.

■ **매케인 “사드 돈 우리가 내는 것”…사드 비용 美부담원칙 확인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사드 돈은 우리가 내는 것”이라고 말함.
- 매케인 위원장은 오랫동안 공화당을 이끌어온 리더인 데다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원래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 매케인 위원장은 또 한미 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같이 잘 해나가자”고 말함. 이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한미가 합쳐서 잘 대응하자”고 강조함.

2017. 5. 22.

■ **한미·한일 6자수석 어제 긴급통화…“北도발 강력규탄”(연합뉴스)**

-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이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긴급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 일, 중 등 주요국에 대한 대통령 특사단 파견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제고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함.
- 당국자는 “이번 도발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함.

2017. 5. 25.

■ **브룩스 사령관 “사드 신속배치, 北위협 때문…한국방어 목적”(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신속히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었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로 열린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것(사드 배치)은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가안보에는 타임라인(시간표)이 없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배치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임성남 외교차관 방미…한미정상회담 일정 의제 조율(연합뉴스)

- 외교부 당국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내달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준비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고 발표함.
- 임 차관은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전, 북핵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임 차관의 미국 방문 기간 문재인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지 주목됨.

2017. 5. 26.

■ 트럼프 ‘4대 대북기조’ 확정…한미공조 항배 주목(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 항배에 관심이 쏠림.
-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현지시간)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트럼프 행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함.
- 문재인 정부도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내세운 만큼 액면상 양국의 정책에 결정적인 차이는 없어 보임.

나. 한·중 관계

2017. 5. 22.

■ 사드 보복 조치 풀리나·중국 언론도 '해빙 분위기' 조성(연합뉴스)

-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취했던 보복 조치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음.
- 22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지난주 방문을 계기로 사드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한국의 사드해결 의지를 지켜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알리바바 여행사이트 '페이주(飛豬)'에서 한국 내 테마파크나 호텔 등을 예약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 늘었다고 보도함.

2017. 5. 23.

■ 中, '일대일로' 이어 한국 통과 '일대일로일도' 추진(연합뉴스)

- 육상과 해상 신 실�크로드를 뜻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 중인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을 통과하는 북극항로인 '일도(一道)' 개발 구상을 본격 추진중.
- 후안강(胡鞍鋼) 중국 칭화대 국정연구원 원장은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의 전체 명칭은 '일대일로일도'이며 여기서 일도는 북극 항로 개발을 의미한다"고 밝힘. 후 원장은 "일도란 북극해와 연결한 태평양과 대서양의 운수 항로로 동북항로와 서북항로가 있다"면서 "동북항로는 동북아와 서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항로로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서쪽으로는 서북유럽 북부 해역이 있다"고 설명함.
- 또 중국이 '일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지역에 북극에 에너지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북극 항로와 관련된 나라가 한국과 러시아 등 소수이며 이들 나라와는 이미 경제 우선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는 점 때문임.

■ 中외교부 "남북교류 추진하는 한국 새 정부 대북정책 적극 지지"(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는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대화와 교류 회복을

포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며 “남북 간 접촉 강화와 교류 증진을 지지한다”고 답함.

- 화 대변인은 “중국은 남북이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17. 5. 24.

■ 中, 한국상품 통관제재 슬며시 풀었다…사드 이전수준 회복(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까다롭게 적용하던 통관 제재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으로 확인됨.
- 2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코트라 중국 본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중국 해관(세관 격)의 한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 샘플링이 사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해짐.
- 중국 지방 정부들은 최근 들어 한국 업체 또는 기관과 사드 갈등으로 지연됐던 협력 사안을 다시 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 한·일 관계

2017. 5. 22.

■ 마이니치신문 “日정부, 한중일 정상회의 7월 개최 추진…조율중”(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7월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함.
- 마이니치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될 전망이며, 중국에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일본 정부는 7월7~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회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日언론, 韓외교장관 지명에 촉각…“위안부 재협상 주도할 듯”(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국 외교장관에 첫 여성 기용’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여성

외교장관이 탄생하게 되면 한국 헌정 사상 첫 여성 외교수장이 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내건 만큼 강 후보자가 그 선두에 서게 될 것 같다”고 전함.

- 요미우리는 이어 강 후보자가 한국 여성 외교관으로서 유엔 기구의 최고위직에 올랐다면 “한일관계를 둘러싼 수완은 미지수”라고 덧붙임.
- 니혼케이자이신문은 강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유엔 근무를 희망한 이유로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제시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한일 간 현안으로 남아있는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2017. 5. 23.

■ **일본인 57% “女대통령 취임후 한일관계 변화 없을 것” (연합뉴스)**

-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한일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를 차지함. 이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1%였으며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5%에 그침.
- 여론조사에선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해 재검토 입장이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가 60%로 나타남. ‘재검토하는 쪽이 좋다’는 21%임.
-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19일 밝힌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3%로 집계된 바 있음.

라. 한·러 관계

2017. 5. 24.

■ **송영길 대러 특사 “남북러 3각협력 사업 복핵 해결 지렛대”(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3일(현지시간) 특사 활동 첫날 일정으로 러시아 의회 지도부 인사, 극동개발부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힘.
- 이날 면담에서 러시아 측은 북핵 문제를 제재와 압력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우리측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도를 국제 공조를 통해 강력히 통제해 나가되 동시에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 정부의 구상이라는 점을 러시아 측에 설명했다고 송 특사는 소개함.

- 송 특사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함.

2017. 5. 25.

■ **푸틴 “한반도 위기 해결 중재 위해 북한에 특사 파견 동의”(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일행을 맞아 면담하면서 ‘북한 상황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용의가 없는가’란 송 특사의 질문에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송 특사가 전함.
-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전쟁을 통해서도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또 제재만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 전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푸틴은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난 재앙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전쟁은 안 되며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북·미간 직접대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5. 21.

■ **美틸러슨 中양제츠 또 전화통화··한반도 상황 논의(연합뉴스)**

- 21일 신화통신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양제츠(楊潔篪兼대신虎들야간廉)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양자 외교 고위층의 전화통화는 지난 17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의 전투기와 미 공군기 사이에 ‘위험한 근접비행’이 발생한 직후 이루어짐.

- 양 위원은 통화에서 중, 미가 주요 국제현안과 지역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통신은 중국이 다가올 중미 외교안보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북한을 공조가 필요한 주요 국제현안중 하나로 꼽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함.

2017. 5. 24.

■ **北미사일 발사도발에도 대화강조하는 中…미중 공조흐름 이탈?(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갈수록 '대화'에 무게가 실려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 미중 공조의 흐름 속에서 제재를 강조하던 분위기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됨.
- 24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린 23일(현지시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벳쇼 고로(別所浩郎) 유엔대사가 더 강력한 제재 결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맞받아쳤다고 소개함.
-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면서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함.

2017. 5. 25.

■ **中시진핑 “강력한 원양해군 건설” 강조…미국 견제 염두했나(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해군기관을 방문해 강력한 원양해군 건설을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해군기관을 시찰한 자리에서 “현대화된 해군이 세계 일류군대의 중요한 지표이며 해양강국의 전략적 지지기반인 동시에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말함.
- 시 주석이 현대화된 해군과 원양작전 능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과 해상전력의 충돌을 대비한 것으로 보임.

■ **中, 美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작전에 “즉시 중단하라” 반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첫 '항해의 자유(FONOP) 작전을 수행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날 실시한 작전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요청에 “미국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함.
-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작전을 벌인다”며 항해의 자유 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며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작전을 펼치며, 순서는 특정 국가나 수역과 관계없다”고 덧붙임.

■ **中, 美와 무역불균형해소 ‘100일계획’ 시동…“에너지등 수입확대”(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25일 발표한 ‘중미무역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이하 보고)에서 중국이 에너지·농산물·첨단기술 상품·서비스 등 분야에서 대미 수입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상무부는 보고에서 “중국의 향후 5년간 수입 총액은 8조 달러(한화 9천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선 액화천연가스(LNG)·원유·휘발유 등 완성품 기름, 농산품은 대두와 면화 등을 거론하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실질적인 무역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나. 미·일 관계

2017. 5. 21.

■ **로스 美상무 차에 “미일 FTA 체결이 최종 목적” 압박(연합뉴스)**

- 로스 상무장관은 아사히신문 21일자에 게재된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시작된 미일 경제대화와 관련해 “우리들의 희망은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 5개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가 있지만, 일본, 중국, 유럽과의 사이에는 (FTA)가 없다”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일본은 상업적인 관계가 오랜 기간 대단히 강해졌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긴밀한 관계다”고 설명함.

-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TPP에서는 일본도 어느정도 양보한 적 있다. 앞으로의 협의에서 (TPP가)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TPP의 통상 규칙을 토대로 일본에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것임을 시사함.

2017. 5. 24.

■ **美트럼프-日아베, G7 열리는 이탈리아서 따로 만나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별도 회담한다고 일본 정부가 24일 밝힘.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말함.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북한, 테러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잇따른 모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임.
- 아베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연대해 압력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됨.

2017. 5. 25.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내달 3일 싱가포르서 개최 조율중”(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양국이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 맞춰 한국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전함.
- 신문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지난 21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거듭 자행하는 것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을 좁히고 3국 간 방위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미일 양국은 이와는 별도로 개별 회담 개최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 일본 자위대의 미국 함선 방어 등 안보법에서 새롭게 허용된 임무를 착실시 실시해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합의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함.

■ **주일미군, 日배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언론에 공개(연합뉴스)**

- 일본 수도 도쿄의 주일미군 요코타(横田)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지난 24일 현지 언론에 공개됨.
- 미군측은 총 5개의 글로벌호크를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고 오는 10월까지 운용할 방침임. 이 중 4기는 이미 요코타 기지에 도착함.
- 글로벌호크는 공격력은 없는 정찰기로, 일본 방위성은 미사와(三澤)기지에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글로벌호크 3대를 배치하기로 함.

■ **“美, 日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 괌 이전계획 재검토”(연합뉴스)**

-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벨러 미 해병대 사령관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공청회에서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縄)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짐.
- 벨러 사령관은 공청회에서 “최근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적인 정세는 변했다”며 “적국의 능력이 역학을 변경시켰다”고 말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나 수송헬기 등의 배치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함.
- 미 군사전문가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이 곤란하게 될 경우엔 대상 병력을 하와이나 호주 북부 다윈에 분산 배치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다. 미·러 관계

2017. 5. 20.

■ **트럼프, 러시아측에 “미치광이 코미 해임…엄청난 압력 넣었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다음 날인 1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대사를 만나 이른바 '러시아 커넥션' 수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함.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이유가 '러시아 커넥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방증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임.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NYT의 이번 보도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고 전함. 스파이서 대변인은 FT에 보낸 답변에서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에 대한 수사를 공론화하고, 정치화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협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했다”고 밝힘.

2017. 5. 21.

■ **“트럼프 러 외무장관 접견 발언, 사법방해 증거될 수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당시 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관련 발언들이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옴.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만나 코미 해임으로 ‘러시아 커넥션’ 수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
-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현직 법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그가 코미를 해임한 의도를 잘 드러내 준다고 이는 트럼프가 받는 사법방해 혐의의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21일 보도함.

2017. 5. 25.

■ **“러시아, 플린·매너포트 활용해 트럼프에 영향력 행사 계획”(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트럼프 캠프 인사들을 활용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지난해 여름 러시아 고위 정보당국자 등이 트럼프 측근을 이용해 트럼프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내용을 입수함.
-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논의 사실이 신뢰할만하다고 보고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FBI)에 넘김. 다만 러시아 측이 실제로 매너포트와 플린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NYT는 설명함.

라. 중·일 관계

2017. 5. 22.

■ **中, 지하수 탐사 기념성 6명 구속…간첩혐의 적용 가능성(연합뉴스)**

-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3월말 지하 탐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일본인 남성 6명을 구속. 이들은 모두 중국 지하수 탐사·지반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의 사원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고 온천 탐사 활동을 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음.
- 교도통신은 6명 중 하이난 성에서 구속된 20대~50대 남성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 위해 협의가 적용됐다며 중국 당국이 산둥성에서 구속된 3명에 대해서도 간첩 행위 연루 혐의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이들 중 4명이 속한 일본 회사는 NHK에 “중국의 기업으로부터 호텔 등의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 기술을 지원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현지에 (사원들을) 보냈다”며 “(사원들이) 국가의 안전에 관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2017. 5. 23.

■ 중국 해경선, 日과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침입(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이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일본 영해에 또 침입했다고 NHK가 23일 보도함.
- 일본 해상보안부는 중국 해경선 4척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1시간 반 동안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우오쓰리시마(魚釣島) 앞바다의 자국 영해에 침입해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했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침입 사실을 확인한 뒤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의 정보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격상해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를 강화함.

2017. 5. 26.

■ 중국 해경선, 日과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침입(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참의원은 26일 오전 본회의에서 자위대가 보유한 중고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또는 싼값에 양도할 수 있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자위대가 쓰던 장비를 무상 또는 헐값에 동남아 각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됨.
- 이는 중고 초계기 등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에 제공해,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마. 중·러 관계

2017. 5. 23.

■ 중·러 “한반도 전쟁 불허…사드 반대 확고” 한목소리(연합뉴스)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나섬.
- 2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함.
- 이날 회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긴장 정세에 대해 고도로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이어 양국은 유관 각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함.

2017. 5. 25.

■ 시진핑 7월 러시아 방문…푸틴과 북핵 해법 논의한다(연합뉴스)

- 2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안드레이 테니소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기자 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7월 초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도발로 국제 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압박보다는 6자 회담 재개 등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 회동을 통해 북핵문제 당사국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2017. 5. 26.

■ 중왕이 만난 푸틴, 국제문제 협력약속…북핵 대화해법 공유한 듯(연합뉴스)

-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추가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됨.

-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5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은 물론 공동 노력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함.
- 중국과 러시아 양측은 자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요 국제관심사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법에 의견을 함께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바. 일·러 관계

2017. 5. 24.

■ 日, 러와 영유권분쟁 쿠릴섬 공동경제활동 조사단 보낸다(연합뉴스)

- 일본이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양국 공동경제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현지 조사단을 사할린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쿠릴 4개 섬을 사실상 관할하는 사할린주와 공동경제활동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민관 조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조율 중.
- 조사단은 아베 총리 보좌관과 외무성, 민간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현지 기업과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5.24	미 의회서 '북 종교자유'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5.25	미국인 북한관광 전면금지법안 하원 발의(자유아시아방송)
		영 "한반도 정국 불안" 여행주의보 갱신(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5.21	북, 군인들 장마당 출입 금지령(자유아시아방송)
	5.22	북 주민, 때 아닌 식량난 겪어(자유아시아방송)
	5.24	김정은에 대한 민심 크게 악화(자유아시아방송) 북, 국내국제 전화 가능한 전화기 등장(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5.26	정부,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 승인...작년 1월 이후 처음(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5.20	휴먼라이츠워치 '중국서 체포된 탈북자 8명 아직 강제복송 안 돼'(미국의 소리)
	5.25	美특사단 "文대통령도 이산가족"...남북 인도적 교류 타진(연합뉴스)
대북지원	5.20	유니세프, 북한서 '아동 급성 영양실조 관리사업' 확대(미국의 소리)
	5.22	UNDP, 대북사업 연장 미뤄...기존 사업은 계속 진행(미국의 소리)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 열어(자유아시아방송)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5. 24.

■ 미 의회서 '북 종교자유'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정책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24일 미국 하원에서 개최함.
- 기독교 박해 감시를 위한 민간단체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가 미국 상하원의원과 탈북민, 전문가를 초청해 종교 자유 등 북한 주민이 직면한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희망을 야 한다고 강조함.
-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선 6자회담 등 북핵 협상에 있어 가장 큰 실책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제재 등과 함께 종교 자유 등 인권을 대북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2017. 5. 25.

■ 미국인 북한관광 전면금지법안 하원 발의(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과 여행객을 이용한 인질극을 막기 위해서, 미국 하원이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함.
- 그 동안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은 물론 인질극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난이 제기돼온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입법에 나선.
- 애덤 쉬프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 윌슨 (공화당,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법안은 '북한여행통제법'으로 명명돼 25일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발의됨.
-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여행과 관련한 (금융)결제를 사전허가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특히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영 "한반도 정국 불안" 여행주의보 갱신(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외무부가 24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역내 불안정 가능성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영국

- 외무부는 이날 갱신한 여행주의보를 통해 이 같이 경고하고 최근 북한은 자국내 일부 외국인의 출국을 막거나 억류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의보는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북한 여행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이 정치와 안보 상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함.
 - 영국 외무부가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한 것은 지난 18일로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았음. 당시 외무부는 북한에는 테러 위협이 크지 않다고 평가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5. 21.

■ 북, 군인들 장마당 출입 금지령(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5월 초부터 군인들의 장마당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장마당에 접근하려다 단속을 당한 군인들은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소식통은 또 “장마당은 군 지휘관들에게는 후방물자를 빼돌려 돈을 벌 수 있는 요충지이자 배고픈 병사들에게 절도나 구걸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며 “장마당에서 팔리는 식량의 대부분은 군 지휘관들이 부대에서 빼돌린 것”이라고 설명함.
- 군인들의 장마당 출입을 금지하라는 지시는 인민보안성의 주민동향 자료를 보고받은 김정은이 당장 대책을 세우도록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인민군총정치국이 전국의 군부대들에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됨.
- 소식통은 이어 “인민군총정치국은 장마당은 아직 우리(북한) 사회에서 자본주의 요소가 남아 있는 유일한 구역이라고 지적했다”면서 “2013년 7군단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한국영화를 보다 발각된 사건도 장마당에서 알판(CD)을 구입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까지 달아 장마당 출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강조함.

2017. 5. 22.

■ 북 주민, 때 아닌 식량난 겪어(자유아시아방송)

- 하루도 그치지 않는 정치행사와 주민동원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정치행사와 주민동원을 이유로 이동을 금지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장사길이 막혀 식량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0일 “올해 들어 장마당의 식량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끼니를 건너는 가정들은 늘고 있다”며 “부모를 대신해 장마당 장사에 나서느라고 학교를 결석하는 초급중학교 학생들과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한마디로 지금의 식량난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금과 식량의 유통이 꽉 막혀 나타난 결과”라며 “주민들을 통제할 생각만 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앞으로 식량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함.

2017. 5. 24.

■ 김정은에 대한 민심 크게 악화(자유아시아방송)

- 20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5월 초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불만을 표출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며 “김정은에 대한 이 같은 비난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중간급 간부나 돈 꽤나 있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함.
- 소식통은 “이렇게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몰락하기 시작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예전엔 아주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나 가능하던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요즘엔 7~8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임.
- 소식통은 “식량가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5월 초부터 끼니를 거르거나 입쌀을 먹다 강냉이로 전환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며 “젊은이들 속에서 ‘입쌀절벽 강냉이 태산’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함.

■ 북, 국내국제 전화 가능한 전화기 등장(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에서 남한에 탈북민 가족을 둔 사람들을 ‘전화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짐.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가족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 불법통화를 자주하는 주민들을 일컫는 말인데 사법당국이 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혀짐.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0일 “요즘 보안서와 보위부가 외부와 통화하는 ‘전화쟁이’들을 단속하고 나섰다”면서 “전화쟁이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 내 가족, 친지와 통화를 하는 사람들로 사법당국이 이들을 단속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함.
- 소식통은 또 “전화기 한 대로 국내전화와 국제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산 손전화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산 손전화기가 보급되면서 국제통화량이 급격히 늘었고 사법당국이 모든 통화를 다 감시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라고 지적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5. 26.

■ 정부,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 승인…작년 1월 이후 처음(연합뉴스)

-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힘.
-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것은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지원사업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한 바 있음.
- 이 단체 외에도 북한 어린이 대상으로 보건·영양·교육 지원사업을 해 온 어린이어깨동무 등 대북지원 단체 여러 곳이 대북접촉을 신청해 놓고 있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5. 20.

■ 휴먼라이츠워치 ‘중국서 체포된 탈북자 8명 아직 강제복송 안 돼’(미국의 소리)

- 지난 3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8명이 아직 북한으로 강제복송되지 않았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힘.
-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들 탈북자 8명이 당시 체포돼 구금된 곳에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말함.
-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앞서 지난달 23일, 이들 8명이 3월 중순 중국 랴오닝 성 선양에서 교통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신분증이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돼 구금됐다고 밝힘. 그러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함.

2017. 5. 22.

■ **美특사단 “文대통령도 이산가족”…남북 인도적 교류 타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이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이나 의약품 전달 등 인도적 차원의 접근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 특사단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출신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짐.
- 미국 특사단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국면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북한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남북협력사업은 아닌 것 같다면, 대신 이산가족 상봉이나 의약품 전달 같은 것은 인도적이고 자본도 유입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함.

5. 대북지원

2017. 5. 20.

■ **유니세프, 북한서 ‘아동 급성 영양실조 관리사업’ 확대(미국의 소리)**

- 유엔이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아동 영양실조 관리사업을 전체 5세 미만 어린이의 90%, 150만여 명까지 확대했다고 밝힘.
- 유니세프가 19일 ‘VOA’에 공개한 북한 어린이 보건 관련 자료에서 북한 5세 미만 어린이의 3분의 1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고, 20만여 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아동 영양실조 관리사업 (CMAM)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점검해 사전에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약과 식량을 지원해 치료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2017. 5. 22.

■ UNDP, 대북사업 연장 미뤄...기존 사업은 계속 진행(미국의 소리)

- 유엔개발계획 UNDP가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정기 집행이사회에 대북 사업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 지난해 말 종료된 '2011~2015 북한 국가사업'의 1년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 집행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하지 않음.
- 유엔개발계획은 다만 연장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진행 중이던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유엔개발계획은 지난해 북한에서 식량안보와 농촌 지역 에너지 개발, 환경, 재난 대응 등 4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했었음.
- 앞서 'UNDP, 유엔인구기금, 그리고 유엔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는 지난 1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기 집행이사회에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연장 결정을 보류했음.

■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 열어(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최근 북한 당국과 함께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밝힘.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엔아동기금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특별히 5살 이하 북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열림.
- 유엔아동기금은 5살 이하 전체 북한 어린이 가운데 3분의 1이 발육장애 상태이며, 20만명은 심각한 영양부족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함.
- 이날 행사에서 유엔아동기금은 북한 전역에 걸쳐 5살 이하 어린이 170만명에게 비타민 A와 함께 구충제를 나눠주고 건강상태를 살핌.